



세계4강 “대~한민국!”



오 세 익

우리는 적어도 축구에 관해서는 그동안 멋진 한을 풀었다.

우리팀이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유럽 강호들을 잇달아 격파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4강이라는 놀라운 금자탑을 쌓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82년 스페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기간에 유럽 출장중이었는데 이쉽지만 우리나라는 본선 무대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으나 유럽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과 뜨겁게 달아오른 월드컵 열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94년 미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기간에도 마침 유럽에 머물렀는데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24개국이 참가한 본선무대에 진출하여 스페인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독일에는 2대3으로 패하는 등 선전했으나 아깝게도 1회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한 날 숙박중이던 호텔의 지배인이 축하인사를 건네는 걸 보면서 자부심과 함께 유럽인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되뇌이던 기억이 삼삼하다.

그런데 이번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4강에 우뚝 섰으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던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 세계 각국이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으며 당연히 온 나라가 들끓을 수밖에 없었고 필자 또한 감회가 새로웠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온 나라에 붉은 응원단의 물결이 넘쳐흘렀으며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짹 짹 “오~필승 코리아!”를 목이 터져라 외쳐댔으니 그 누가 이 땅의 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이 하나됨을 재확인 시켜주는 대화합의 축제이었고 국운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다.

이제 월드컵축구는 4년후를 기약하며 완전히 막을 내렸다.

정부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포스트 월드컵’ 대비책을 마련중에 있다. 축구에서 이룬 내친걸음으로 ‘경제 세계4강’에 도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마음에 와 닿는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분야도 세계4강을 목표로 함께 뛰어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쇄업계도 월드컵성과로 얻은 국가이미지 상승을 발판으로 삼아 국제무대에 과감히 뛰어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다른건 몰라도 인쇄인들도 ‘한다면 한다’는 결집력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보증할 수 있다. <편집주간>